

(4)



오성화 선생

오성화 선생은 1906년 7월 2일에 중국 동만주 연변군 학포동에서, 빈농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었다. 선생이 7세 되던 해에 양친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다. 선생은 12세 때에 제정 러시아, 원동지방 깡사꿈까논, 북이플 구역에 살고 있는 형을 찾아 오게 되었다. 선생은 1924년까지 형의 덕행으로 공부하게 되어 농공을 바감한 다음 경제적 곤란에 의하여 1924년 부터 1928년까지는 울타리위소도크 시에서 화물차 짐을 실어주는 노동자로 일하시었다. 선생은 1923년에 레닌 공청회에, 도는 1928년에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시었다. 선생은 좋은 노동정력과 공산당의 축원에 따라 1928년 부터 1930년까지 울타리위소도크 시 당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를 바감한 다음에 깡사꿈까논에서 도서관 주임으로 일하시었다. 도서관 주임으로 일하던 일하시 다음 1931년 부터 또

일년간은 위로실로브시 공성동맹 농촌정치 및 협동조합 지도부 부장으로 일하시었다. 오선생은 1932년 부터 1935년까지, 4년 동안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공부하시였으며, 그 대학을 필한 다음에는 가자흐 공화국, 알라타우 안드레예와 쿠당 선동선전부 부장으로 일하시였다.

1937년 - 1938년 2년 동안은 알라타우 시 알라타우-노보루키 대학에서 오선생은 공부하시였으며, 그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가자흐 공화국 깡슬올다 쿠당위원회 책임 강사로 1941년까지 역임하시였다.

1941년에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개시됨과 함께 오선생은 소련군에 초몰리여 1945년까지 원종병장 전선 정치국 지도원으로 일하시였다.

오선생은 1945년 초에 병으로 현하여 소련군대에서 제대하여 다시 가자흐스탄에 돌아와 "노비리르" 병영 협동조합 당조직원으로 1948년 초까지 일하시였다.

오성화 선생은 1948년 초에 소련공산당의 화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연방공화국에 화전하여 중앙정부 문화선전성 부장으로 일하시였다. 1949년 중남부에서 1951년 초순까지 평남 도당 중앙위원회 부회장으로 일하시였고, 1951년 부터 1952년 중순까지 조선연방군 제 1군단 군사위원으로 계셨으며 1952년 8월 부터 1953년 2월 까지 조선인민군 기책 정치국관장과 교장으로 계셨으며, 1953년 4월 부터 1955년 9월까지 북한정부 고흥성 해안 관리국장으로 일하시였다.

오성생은 1955년-1959년 말까지 공화국 중앙국가
중재 재판소 부소장으로 일하시다가 1960년 8월
에 소련으로 귀환하였다.

오성화 선생은 이 당시에 원기성대하시고 나이
나히 54세에 인간 생활과 사업경험이 풍부하
신 준비된 지도 간부로서, 또 그렇게도 겸손하시
고 욕심도 내걸고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투
쟁하셨으나 조국의 흥일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
조국을 등지고 다시 소련 땅에 귀환하게 된 것은
다만 당시 북한이 독재주의, 반인류주의 정책이었
기 때문이다. 오성화 선생도 다른, 소련에서 퇴권되
어 나간 전체 공무들과 같이 한가지로, 소련 공화국
의, 소련 가족주의, 관료주의 간판으로 죄목을 시웠으
며, 그 외에 흠이하게 참복한 것은 오성생이 김백정씨
군관학교 교장으로 모항산에서 일하실이 1953년
2월에 비항공기로서 정치군관학교를 졸업하여 많
은 허생자를 내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성생의
고위직 위배에 의한 죄로 아닌, 누구도 그 직책에 있
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은 겪어볼 것은 명백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성생은 교장 직무에서 철직되어
해운 관공리에 전근 됨으로써 많은 정신적, 도덕적
조편성을 받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연어 지남이득

다시 사상 검토회 사업에서 이윤제를 중심으로 내걸고 본선
 사업에서 철저히 동선에 관여하여, 아래에 내려가
 재고양 받고 보타고 있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철저히
 동선에 재고양 내려간 사람치고 누구나 한 사람도
 시 평양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어쨌든 평
 양에서 가족을 데리고 동선에 정배사퇴로 간다는 문
 제는 생사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은
 문제는 눈물과 한숨이 끼인 어두운 문제였으나, 행여나
 세월이 바르잖으면 고향에도 다시 찾아 오는 문제로
 어쨌든 반석-소련 땅으로 다시 걸음 걸이를 걸었어
 될 것이다.

오선화 선생은 1960년 9월에 소련에 귀환되
 어 소련공산당 중앙 위원회 조직부에 도착하여 분
 전 부속을 방문 후 각지 선적 등지로서 살고 있던 알바
 당에 도착하게 되었다.

오선화 선생은 1961년에, 55세 되던 해에 오선생이
 국가 앞에 어룩한 특별공훈에 의하여 공화국 영웅,
 특별 연금생으로 결정 받고 그 어룩 자식들과 함께
 매우 행복하게 15년간 앓으시다가 1976
 년 9월 20일에 별세하시었다.

1999년 9. 20.